순천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 조성 박차

초등생 안심 알리미·창의적 인재 양성 등 6개 분야 72억 투입
초중고 교육바우처·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맞춤형 지원 강화

순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와 학교, 교육지원청에 다양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순천시는 올해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지역 내 창의적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 72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 대비 2.97% 증액된 금액이다.

교육경비는 ▲학교 공간혁신 사업 8억원 ▲고등학교 지원 7억 5000만원 ▲교육복지 향상 11억 8400만원 ▲외국어 교육 14억 5000만원 ▲창의인성체험활동 12억 2000만원 등이며 6개 분야 35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 중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사업'은 전용 단말기로 입학생 자녀의 등하교 정보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것으로 각종 범죄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에서 등하교하는 장거리 통학생을 위한 '에듀택시 지원'과 2020년에 중단되었던 국제교류 지원은 외국 자매결연 체결학교와의 교류협력 프로그램 및 공동수업 등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시는 3월부터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을 관내 초등학교·특수학교 등 1학년 입학생들에게 연간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150명에게 학원 및 교습소 수강료의 50%를 지원하는 교육바우처사업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최적의 교육 환경 조성 및 교육의 공공성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미래 세대인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어 순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가 행복한 교육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생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군수-군민 신선한 소통 눈길… '지역발전 전략 토론회' 성료

읍·면별 주제 정해 자유 토론… 공영민 군수 "생산적인 논의의 장 됐다"

고흥군이 지난 달 30일 동강, 대서면을 시작으로 9일 점암면에서 끝마친 '지역발전 전략 토론회'가 군민과의 활발한 소통행보를 보여 호응을 얻었다.

'지역발전 전략 토론회'는 주민숙원사업 건의가 주를 이뤘던 기존 읍면 순방의 형식을 과감히 탈피해, 군 역사상 처음으로 군수와 군민이 지역발전과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

이번 토론회는 토론회에 앞서 각 읍면에서는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들이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비전 달성을 위한 지역발전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 과정을 거쳐 읍 면 별 토론 주제를 2가지씩 자율적으로 선정했다.

주민과 함께 지역발전에 대해 생산적이고 열띤 토론을 이어가 군민소통을 위한 혁신사례로 주목받았다.

특히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주민들이 토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토론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군수와의 토론형식의 대화는 처음"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군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알수 있게 됐다"면서 "단순 민원 건의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발전을 주제로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는 시도가 신선했다"고 평가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군민의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고흥을 바꿀수 있다는 신념으로 토론회를 했다"며 "토론을 통한 소통으로군민과 함께 고흥의 변화발전을 설계하고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영민 군수가 지난 2일 고흥읍사무소에서 군민과 소통하는 '지역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흥군 제공〉

군은 앞으로도 군민과의 혁신적인 소통행정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군정에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토론주제중 심도있게 다뤄야 할 주제를 선별해 군 주관으로 발전 전략 대토론회를 개최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정책개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곡성 심쿵 여행

2가지 맛 즐겨요

군, 18·26일 팸투어 시범 운영
체험·관광지·유적지 탐방 코스

"'심쿵 여행' 곡성으로 팸투어 가자."

곡성군이 오는 18일과 26일 히스토리를 품은 '곡성 심쿵 여행 팸투어'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팸투어는 청소년, 가족 단위의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체험, 관광지와 더불어 곡성의 역사적 장소를 혼합했다.

투어는 인문과 체험코스로 구성됐다. 인문코스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청계 양대박 장군 전적지, 천주교 14개 박해 중 하나인 정해박해 유적지, 현대사 최대 비극인 6·25 현장으로 구성됐다.

체험코스는 별자리 외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곡성 천문대 관람, 섬진강 기차마을 레일바이크 타기, 수제 초콜릿 만들기 등이다.

투어 금액은 중식비, 체험비, 관광버스비, 보험료 등을 포함해 2인부터 5인까지 설계됐다. 5인일 경우 40%가 할인된 16만2000원으로 투어를 할 수 있다. 2인은 9만6000원, 3인은 11만8000원, 4인은 14만원이다.

군은 즐길거리와 먹거리, 역사 교육, 체험을 통해 마음에 남는 여행코스로 개발하고 연중 체류형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번 팸투어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문화관광누리집,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 후 군 담당자(061-360-8412)의 유선 안내를 받으면 이용 가능하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구례군, 광의면 복지회관 준공식 구례군 광의면 복지회관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8일 김순호 구례군수 및 관내 유관기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광의면 복지회관은 사업비 25억여 원을 투입해 신축한 건축연면적 959.81㎡의 지상 3층 건물로 다목적실, 동아리실, 체력단련실 등 최신식 시설이 갖춰졌다. 〈구례군 제공〉

보성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17억 투입

산림분야 기간제 근로자 선발 '일석이조' 효과

보성군은 지난 7일 2023년 보성 산림행정을 이끌어 나갈 산림근로자 선발을 위해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17억 원을 투입하고, 2023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단 60명을 모집했다.

면접심사는 92명의 지원자 중 1차 서류 합격자 86명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전문가가 기계톱 작동 및 가로수 전정, 기초체력 검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면접을 진행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중점을 뒀다.

여성은 개인별로 지급되는 안전장구와 작업도구 착용 상태 및 야외 작업환경을 고려해 작업장 이동 및 작업 능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했다. 남성은 개인별 안전장구(안전모, 무릎보호대) 착용 상태와 동력 기계톱을 가지고 이동, 기계톱의 시동, 비상시 엔진브레이크 작동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올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산림재해 예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간제 채용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산림산업과 산림조성팀(061-850-5464)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순사건 한눈에' 아카이브 운영

여수시, 문헌·사료·특별법 사업·추모공간 담아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의 각종 문헌과 사료, 사건 전개과정, 각종 사진과 영상 등의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여수시는 지난해 9월 착수한 '여순사건 아카이브' 홈페이지〈사진〉를 새롭게 단장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게됐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아카이브'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이후 여순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2021년 10월 임시로 운영되다가 이번에 독립된 홈페이지로 구축됐다.

아카이브는 ▲사건으로 보는 여순사건 ▲여순사건 미디어 자료 ▲역사 유적지 소개 ▲알림 마당 ▲추모 공간 등 5개의 메뉴로 구성됐다. 역사적 자료뿐 아니라 특별법 시행 이후 후속 지원사업, 주요 동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 회복을 이루기 위해 역사적 자료의 체계적 수집·관리를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아카이브 기능 개선, 추가 자료 발굴과 수시 업데이트를 통해 방문객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여순사건 아카이브'는 포털 사이트 검색 또는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국민 모두가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고 여순사건의 아픔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오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정원박람회장 공사현장 특별 안전점검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는 2023정원박람회 개막 50여일을 앞둔 박람회장 전체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

지난 9일 박람회장 내 모든 공사현장을 시설별로 공사 중지 후 안전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반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한국산업안전협회 안전관리전문가 3명, 순천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조직위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또 안전전문가, 소방, 전기 등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대책반을 매주 1회 운영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공사관련법 등에 정한 기준 이상의 강화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공단 노후시설 정비

광양시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노후 공단에 대해 공단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단 관리를 위해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광양읍 초남1공단 금호타이어 물류센터 주변 일부, (주)성원 앞 등 2개 구간 약 212m 노후 보도블록에 대해 2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산단과 공단에 있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환경개선과 사고 발생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 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10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해, 파손이 심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장소를 우선으로 선정, 단계적으로 노후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문성기 광양시 산단과장은 "공단 내 노후시설물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우체국쇼핑몰 '여수시 브랜드관' 입점 업체 모집

시, 15일까지

여수시가 지역 농수특산품 홍보와 판로확보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우체국 쇼핑몰 내 '여수시 브랜드관' 입점업체를 모집한다.

여수시 브랜드관은 우체국 쇼핑몰 내 온라인 농수특산품 매장으로 입점 시 각종 기획전 행사 할인쿠폰 적용과 제휴 쇼핑몰 온라인 홍보 판촉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브랜드관 입점을 위해서는 먼저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해야 하며, 쇼핑몰에 상품 등록 후 15일까지 농산물유통과에 브랜드관 입점을 신청하면 된다.

우체국 쇼핑몰 입점은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생산자, 생산단체, 제조업체, 유통사업자라면 누구나 우체국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 약 16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입점업체와 판매품목을 확대해 여수시 브랜드관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 쇼핑몰은 전화(042-609-4298)로, 여수시 브랜드관은 전화(061-659-4503)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